

초록번호 19-6

<b>제 목</b>	국 문	대구지역 치과의사들의 누적외상성 장애에 대한 조사		
	영 문	A Study on Cumulative Trauma Disorder of Dentists in Taegu		
<b>저 자 및 소 속</b>	국 문	전만중, 사공준, 정종학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영 문	Man-Joong Jeon, Joon Sakong, Jong-Hak Chung Yeungnam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b>분 야</b>	환경	발 표 자	전 만 중	
<b>발표 형식</b>	구연발표	발표 시간	10분	
<b>진행 상황</b>	연구완료 (    ), 연구중 ( ○ ) → 완료 예정 시기 : 98년 10월			
<p><b>1. 연구 목적</b></p> <p>치과의사는 환자를 치료할 때 일정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함으로써 특정근육의 피로로 인한 누적외상성 장애의 위험이 높은 직종이다. 치과장비와 진료환경이 인체공학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으나 이러한 장애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현재까지 치과의사를 대상으로한 누적외상성 조사는 드물며, 또한 치과의사들에 대한 교육도 미흡하다.</p> <p>이 연구는 치과의사들에게서 누적외상성 장애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며 증상들과 여러 요인 즉 성별, 연령, 진료시간, 자세 등과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p> <p><b>2. 연구 방법</b></p> <p>대구시의 개업의, 종합병원,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736명을 대상으로 1998년 4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진료에 관련된 사항, 증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우편설문을 실시하고, 회수된 502명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p> <p>조사 내용은 일반적 특성, 진료관련 특성과 자각증상 평가를 위한 사항들이었다.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 상태를 조사하였고, 진료 관련 특성으로는 진료행태와 치과 의사 경력, 주로 다루는 환자의 종류, 일일 진료시간, 진료 위치, 진료시 자세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p> <p>자각증상에 대한 조사는 간단하면서도 질문에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American National Stanford Institute(1995)에서 개발된 자각증상 설문지를 기본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관련 증상의 내용, 증상의 지속시기, 증상 발생의 간격, 증상의 수준, 과거 병력유무와 종류, 의료 기관의 이용 여부, 증상에 따른 진료중단 여부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p>				

작성된 설문지는 소수의 치과의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시행한 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증상 유병률에서 사용된 누적외상성장장애군과 정상군의 구분은 설문지에서 나타난 증상의 양상을 확인하여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1988)에서 발표한 기준인 증상이 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경우를 양성으로 정했다.

각 증상과 항목과의 관련성은 SPSS PC(release 7.5)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chi^2$ -test로 검정하였고, 일반적 특성, 진료관련 특성 등이 누적외상성장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3. 연구결과

설문지에 의한 누적외상성 장애의 증상유병률은 14.1%였다. 남자와 여자 치과 의사의 경우 각각 12.6%와 18.2% 였다. 진료 행태에 따른 분류중 종합병원에서 진료하는 경우가 33.3%로 개업의 16.5%, 대학병원의 13.3%, 전공의 5.7%보다 유의하게 높은 증상 유병률을 보였다. 진료 환자 중 보존치료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서 하지 않는 경우보다 유의하게 높은 증상유병률을 보였다. 주당 진료일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의하게 높은 증상 유병률을 보였다. 구강의 치료부위를 보려할 때 환자를 직접 움직여 위치를 바꿔서 진료하는 경우와 진료자가 직접 머리카 어깨를 숙이는 경우에 따라서 누적외상성 장애를 유발하는 정도는 비슷하였다. 또한 상악과 같은 잘 안보이는 부위를 진료할 때 치과경을 사용하는 경우와 직접 머리를 숙여 보는 경우 각각 11.9%와 18.0%의 증상유병률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지 않았다. 진료위치는 환자를 중심으로 환자머리부위의 오른쪽이 가장 많았으며 진료위치에 따르는 증상유병률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 4. 고찰

이 조사에서 나타난 누적외상성 장애에 대한 증상유병률은 컴퓨터 사용 근로자나 단순반복 근로자에 비하여 높지 않으나 많은 치과 의사들이 양성기준에 근접하는 소견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 치과 의사들에게도 치과 장비의 올바른 사용법과 인체공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인체공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올바른 진료자세를 갖도록 하는 지속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